

#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(22.06)



## CONTENTS

1. 제이인츠바이오 회사현황
2. 모태펀드 결성
3. e-모빌리티멘토링협의체 출범식
4. 한승수 부사장 영입

## 1. 제이인츠바이오 'JIN-A02' 임상1/2상 美 FDA IND 제출 완료

[안다아시아벤처투자조합1호]의 투자기업인 (주)제이인츠바이오가 미국식품의약국(FDA)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신규물질 'JIN-A02'의 임상 1/2상 IND(임상시험계획)를 제출하였습니다. 이는 'JIN-A02' 기술 실시 계약 체결 8개월, 시리즈A 투자 유치 4개월 만입니다.

'JIN-A02'는 \*C797S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경구 투여용 4세대 EGFR TKI(티로신 키나제 억제제)입니다.  
\* C797S: 오시머티닙, 레이저티닙과 같은 3세대 EGFR TKI 사용 후 종양 저항성과 질병 재발을 유발하는 돌연변이

제이인츠바이오는 'JIN-A02'가 심독성이 낮은,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으며 치료 용량 수준에서도 동물 모델에서 체중 감소 및 세포 독성과 같은 유의한 독성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'JIN-A02'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중에서 매우 가치 있는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덧붙였습니다.

또한 제이인츠바이오는 미국 FDA IND 제출에 이어 한국, 중국, 홍콩, 싱가포르, 대만, 호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IND를 제출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혀 글로벌 학계 및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
## 2. 스마트안다-오텍캐리어그린뉴딜펀드 결성 완료

조합명	결성일	조합성격	약정총액
안다-오텍캐리어그린뉴딜펀드	2022년 6월	블라인드펀드	253.5억원

2022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스마트대한민국(멘토기업 매칭출자) 부문에 선정되어 결성 중에 있던 [스마트안다-오텍캐리어그린뉴딜펀드]가 지난 6월 10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조합 등록 완료 통보를 받게됨에 따라 결성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앞으로 안다아시아벤처스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멘토기업들, 그리고 모태펀드와 함께 전기차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벤처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## 3. e-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 출범



모빌리티, 그린뉴딜, IT 등 다양한 업계 최고기업들로 구성돼있는 e-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가 6월 21일(화) 10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되었습니다.

오텍그룹 강성희 회장님, 안다자산운용 최권욱 회장님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세중 처장님, 현대공업 강현석 대표님의 축사로 시작된 본 행사에서 안다아시아벤처스의 조용준 대표이사는 e-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 그룹 구성원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당사와의 중장기적 협업은 물론, 멘토기업(출자기업)간에도 사업시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간의 활발한 사업적 교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. 또한 모빌리티 산업세미나, 투자검토 벤처기업(지투비) IR을 통해 업계 시장동향 파악과 유망 벤처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앞으로 e-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는 당사 회의실과 ZOOM을 통해 진행하는 온/오프라인 방식으로 매달 진행될 예정입니다. 협의체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 4. 한승수 부사장 영입



### <주요경력>

#### 경력:

- 아이디벤처스 벤처투자 본부장
- 대덕인베스트먼트 상무
- LG벤처투자
- 신도리코 기술연구소

대표 포트폴리오: 펙트론, 엠플러스, 스코트라, 한틀시스템, 네스테크, 실리콘테크, 레이젠, 등

최근 안다아시아벤처스는 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승수 부사장을 영입하였습니다. 기존 4명으로 구성됐던 안다아시아벤처스의 투자본부는 한승수 부사장의 영입으로 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.

한승수 부사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을 졸업한 후 신도리코 기술연구소, LG벤처투자, 대덕인베스트먼트, 아이디벤처스를 거치면서 R&D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경험과 14년이상의 VC 투자경력을 보유한 벤처투자 전문가입니다.

한부사장은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15개 회사에 투자하였고 그 중 7개 기업은 IPO 성공했을 만큼 뛰어난 안목과 우수한 벤처투자 실적을 보유하였습니다. 또한 업계에 머물며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적인 투자 심사를 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.

앞으로 안다아시아벤처스는 한승수 부사장의 영입을 계기로 더욱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의 펀드 결성 및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